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 178 호
2022. 9. 19

세션 뉴스레터

Sehsun Newsletter

Contents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 / 3	독일	차상원 선교사 / 5	미얀마	박순영 선교사 / 7
미얀마	김균배 선교사 / 9	세네갈	설재현 선교사 / 11	지부티	조성덕 선교사 / 14
캄보디아	김득수 선교사 / 17	캄보디아	김찬주 선교사 / 19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 / 22
필리핀	고석진 선교사 / 25	베트남	지영환 선교사 / 27	태국	김우종 선교사 / 30
국내선교	석재환 / 32	국내선교	안종택 / 35	국내선교	최고수 / 38
국내선교	김고남 / 41	국내선교	김용화 / 44	본부소식	세션회 / 46
	후원자명단 / 47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지영환, 김희수 선교사)



세션회
Sehsun Global Mission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2-8 세션회관 5층
T : 02-325-4383~4 / F : 02-325-4382
www.sehsungm.org

발행처 사단법인 세션회 발행일 2022년 6월 19일
발행인 정동수 편집인 김덕수 편집 로열컴퓨터케이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션 뉴스레터

Sehsun Newsletter



감비아

유재동 안정순



올해는 첫 비가 일찍 내려서(5월말) 우기가 빠르게 시작 되었구나 하고 예상했습니다. 7월에 접어들었으나 비는 오지 않아서 농부들이 애가 땀습니다. 그 이유는 남 보다 한 발 앞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강풍을 동반하고 퍼부어 대는 통에 시내는 물에 잠기고 도로는 작은 강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사역

이슬람 나라에서 교회 성도들은 귀한 보배입니다. 숫자적으로 절대 우위인 무슬림 속에서 핍박과 차별대우를 믿음으로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Bonto Glo-vill Presbyterian Church)에는 오십명 정도의 보배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18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어두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빛과 같은 일군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사역

기독교동체 겸 대안학교인 BGS(Bonto Glo-vill School)은 더 이상 학생모집을 하지 않고, 내년이 되면 시포 학사(Siffoe Grace House)로 전 학생을 전 학과 동시에 이전하게 됩니다. 이 학



사는 명문 중, 고등학교인 Siffoe School 앞에 위치하여 출, 통학을 부담 없이

하게 되며, 역시 공동체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장학금 사역

배우고자 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귀한 사역이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생, 전문대학생들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세선회를 비롯한 돕는 손길들을 주께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해외유학 사역

지금까지 여러 명의 감비아 학생들이 한국(2), 필리핀(3) 그리고 브라질(1)에서 유학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2023년 7월) 남녀 각각 2명씩 모두 4명의 학생들을 필리핀 국제고등학교를 거쳐서 신학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의과 대학을 소원하고 있기에 필리핀 현지학교와 친밀하게 교섭 중입니다.

개인 상황보고

저(유재동선교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작은 수술을 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수술을 마쳤고, 몇 가지 일을 마친 후 10월 말에 선교지로 복귀합니다. 아내(안정순선교사)는 위장 장애와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9월 중순에 입국한 후 검진과 치료 후 두 사람 함께 돌아갈 계획입니다. 두고 오는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본분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성령의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선교사 되기를
2. 감비아, 세네갈 양국을 오가면서 조건 없는 섬김/연합을 위한 다양한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3. 짧은 방한 기간 중에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최상의 효과를 가져 오기를
4. 가족들의 평강/노모님 남은 생애와 희생적으로 돌보는 여동생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장남 유예령, 정영훈 부부와 유지후 손자 그리고 총각 유예울(33) 모두에게 주님의 기쁨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독일

차상원 정진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독일의 차상원 선교사입니다.

독일의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저희가 독일로 온 후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은 가정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여름을 보내야했습니다. 이곳은 병원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가 없는 곳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 확진되는 사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카페교회 시각장애인 프리드리히도 몇일 전 확진이 되어 자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카페교회 사역

지난달 카페교회 처음으로 야유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국 치킨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을 처음 먹어본 모두가 맛있게 먹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진희 선교사가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던 이란에서 온 가족들도 초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난민 캠프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웃에 사는 난민 여성도 소개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가 다시 방문해주길 요청했고 9월 2일에 다시 방문하여 미용봉사를 하며 다른 많은 캠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계획입니다. 바라는게 우리가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 관리인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라 기도로 준비합니다. 지난번 편지에 전도대상자로 소식을 전했던 터키인 '제미'는 꾸준히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던 독일인

‘볼프’는 카페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 사역

미국 남침례교 선교회(IMB)의 ‘church on the road’ 팀과 협력하여 난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에 독일 기센(Giessen)의 난민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독일어 수업이나 미용사역을 통해 협력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워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의 머리를 자르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8월에는 난민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머리카락 문제로 주변의 컴플레인(Complaint)이 있어 3주간 미용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어 수업에 동역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9월부터는 인원제한을 두고 여성들을 위한 미용사역은 계속 되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인편을 통해 새 미용도구를 주문했는데 이것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사역

지난 번 편지에 소개했던 터키인 ‘제미’와 그의 아들 ‘알리’가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도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국인 ‘지티안’ 부부와 요르단에서 온 ‘후세인’ 그리고 그의 친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벨기에인 ‘로렌스’와 또 다른 중국인 ‘유통’ 브라질에서 온 ‘가브리엘라’는 아쉽게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교회의 상황은 예배당도 없고 열악하지만 꾸준히 전도되어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 시간이 넘는 교회를 온다는 것이 독일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배참석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미얀마

박순영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열대야와 푹푹찌는 열기에 비하면 가을은 참 좋은 계절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얀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 한 켠은 빗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를 받으러 미얀마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건강이 이대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 9월말이나 10월초에 귀임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던 이석증의 재발은 스스로 “이석치환술”을 하면서 어지럼증을 다소 완화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다들 걸리지만 나만은 예외겠지 생각했던 코로나도 7월에 걸려 이제 후유증도 다 없어진 상황이어서 건강상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기숙사 2기생들의 간단한 신앙 간증들을 실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신앙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이퐁

제 이름은 이이퐁이고 8학년입니다. 저는 2019년에 선교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센터에 오기 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저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종교 행위에 문화 충격이 왔고, 센터에 오기 전 부모님이 불교를 계속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불교 방식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친

구들이 예배, 기도, 성경읽기에 참여하자며 저를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모든 멤버들이 서로를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제가 몸이 좋지 않고, 슬플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딸과 자매처럼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일과 행동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사

저는 9학년에 재학 중인 따사입니다. 저는 2019년 센터입학시험을 통과하여 센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센터에서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센터가 내 삶을 발전시키고 내 모든 것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있을 때 나는 부주의한 소녀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센터에 있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저의 자존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향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예배와 기도에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처음에는 읽기와 학습에 게을렀지만 지금은 독서가 취미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현명하게 주변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학년승급 시험을 통과하고 방학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 방학은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언제나 끝이 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의 전염병과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양곤으로 돌아와 센터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기적이었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된다면 온 힘을 다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돕고, 나누겠습니다. 제 소망이 결실을 맺혀지기를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김군배 최기숙



밍글라바!(안녕하세요) 미소의 땅, 기회의 땅, 젊음의 땅 미얀마에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의 물질로 후원하여 주시는 이사장님과 본부에서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김 총무님, 세션회 온 가족분들께 진정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꼭 한번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위한 말씀 강의와 집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적으로 이곳은 우기 철 긴 장마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양곤대학교에서 도보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지대가 낮아 큰 비가 오게 되면 실개천까지 범람하여(하수도 배출) 집 앞에 주차된 차량들의 바퀴가 거의 빗물에 침수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차주들은 밤중이라도 급히 뛰어나와 침병 침병 빠지면서 자동차를 좀 더 높은 지대 안전 한 곳으로 이동시키느라 마음도 몸도 허둥대다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번 8월에만 두 번이나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양곤 대학교 주변은 마치 서울의 홍대 입구 주변처럼 특별히 젊음 이들이 많습니다. 양곤시 거주자들도 있지만 또 다른 지방 도시, 시골에서 유학 또는 취업의 기회를 얻고자 어학원에 (영어, 한국어, 일어, 중국어) 다니며 컴퓨터 학원, 핸드폰 수리 기술 등등 배우는 구역으로 특화 되어 있습니다.

이잉카잉 22세의 어린 가장 여성입니다. 미얀마 화가들과 친분을 쌓으며 갤러리를 오픈하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그녀의 갤러리를 방문하고 대화를 몇

차례 나누면서 꼭 1년 전, 코로나로 53세의 어머니를 여윈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심에 순종하며 저희 부부는 어린 갤러리 원장에게 간절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 한다. 영원한 영생에서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엄마를 여윈 청년 가장은 진지하게 저의 전도를 귀담아 들으며 기독교와 예수님에 관해서 기회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소개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그림들이지만 그동안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도 난민촌 캠프, 외곽 처소 교회들, 고아원 그리고 여러 대학교, 정부 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갤러리 전시회 13차례글로벌 꿈 동이 갤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중에는 예수님이 어린양을 앓고 있는 작품도 있어서 불교도들에게는 예수님과 복음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전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9월 중순, 그녀의 갤러리에서 미안마 유력한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하여서 함께 미안마-한국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30여점의 작품 중에서 으뜸이고 핵심인 예수님과 어린양 작품을 관람하는 모든 이들에게 굿 뉴스인 복음! 그 분이 보여 지고, 듣게 되고, 알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부디 두 손을 모아 기도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드슨 국제 신학대학원/GGU - 목회자 재 연장 교육 [크리스찬 리더십]

석, 박사 학위 과정 11명은 오프, 언 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각자의 전공 분야 논문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드슨 국제 학교 JIS - (저드슨 인터내셔널 스쿨) 설립을 위해서 미안마 정부 관련 부처에 정식 인허가증 취득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곤 대학교 - 리더십과 함께 하는 한국학 (한국어와 문화) 1기생 수료식
석사 과정 학생 40명 수료
- 코미카 (한-미 교육 문화 교류 협회) 교육 문화 센터 오픈

양곤 대학교 - KOMECA 한국어 기초 과정 KLP 1기생 수료식
교수 교직원 학생 (혼합) 39명 수료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리어서 머물고 일하라 하신 분부 앞에 인생의 남은 세월도 순종하면서 푯대를 향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경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네갈

설재현 이해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세션회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강건하신지요?

약 두 달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세네갈로 잘 돌아왔습니다. 아프지 않고 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하게 도착하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오자마자 딸 희연이는 다니던 학교의 기숙사로 들어갔고, 저희 말씀드렸던 대로 마을로 들어 갈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세네갈의 북동쪽 국경 근처로의 이동이라 이것저것 준비하여야 할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 함께 사역하게 될 동료, 네덜란드 싱글 선교사인 마리케와의 팀 빌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 만나 예배드리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또 '라네루'(이사 갈 마을)를 위한 기도를 같이하고, 서로의 삶의 과정 및 간증, 성향 및 리더십 스타일 등을 나누고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팀을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랫 만에 만나는 현지 친구들은 저희를 보고 반겨줍니다. 그 중엔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무슬림 친구들도 있어서 그들 마음 안에 꾸준히 저희를 향한 관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작지만 한국에서 사 온 믹스커피나 사탕 등으로 저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것이 현지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의 작은 마음이지만 그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는가 봅니다. "어이~ 너는 진짜 내 친구다!" 라는 말로 고마움을 전해오네요.

한국 방문 중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뻐는데, 특별히 세션회 사무실에서 이사장님 및 세션회 식구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응원도 받고 감사한 성도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음악 사역

앞으로의 음악사역에 필요한 악기 및 장비들을 구입하여 올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간 준비해왔던 이 곳 문화에 맞는 복음(참조: HonorShame.com-Resources for Global Ministry)프로젝트를 통해 작사 작곡된 다섯개의 곡들이 가녹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입한 악기와 장비들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질로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주님이 기쁨 부으시고 지혜주시기를 구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프로젝트는 빨라어로 번역하여 재녹음하려고 계획 중이며(현재는 프랑스어) 나아가 알맞은 그림들을 입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튜브 상에서 빨라컨텐츠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귀한 소통의 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빨라들은 서아프리카 세네갈부터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의 수단, 북쪽으로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카메룬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살고 있는 아주 큰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빨라 사역자들은 말합니다. 이슬람을 가져와 퍼트린 이 빨라 종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이들은 그 어떤 종족보다 앞서 또 예수님을 전할 것이라고요!

라네루

9월에는 이사 갈 마을을 다시 방문하여 마을의 수장들과 관공서의 책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외부 사람으로서 그 마을에 들어 가 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절차로서, 결국 그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10월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빨라 종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임인 <Nomadic Peoples Network>가 세네갈에서 열립니다. 약 일주일간 개최되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 다양한 국적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참 기대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팀이 시작하는 때와 더불어 이렇게 감사한 일정을 참여하게 되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실 주님의 계획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특별히 WEC에서 발행되는 월간지인 RUN의 메인 코너인 '세계 속 그 땅'에 글을 신게 되었습니다. 세네갈 필드에 대한 역사 및 소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멤버모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혜 주셔서 필요한 글,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나아가 세네갈 땅에 필요한 일꾼들이 이 글을 통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회연이가 기숙사에 들어간 후 일주일째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열도 나고 몸살에 기침 콧물 등으로 힘들어 하는데 속히 건강을 되찾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10월 정도로 이사 계획을 잡고 9월에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을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순조롭고, 정착이 허락되며, 살 집을 알아보는 모든 과정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소개할지, 신분에 대한 명확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10월 3일부터 8일까지 <Nomadic Peoples Network>가 세네갈에서 열립니다. 여러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 빨라 종족을 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강의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가지 것들을 배우게 될텐데, 기도로 잘 준비하고 좋은 열매를 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세네갈의 영적 돌파의 계절이 오기를 꾸준히 기도해 주세요. 모든 부흥의 시작에는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었고, 이 오랜 열매 없는 땅에 기도가 쌓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속히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부티

조성덕



뵘고 싶고 나누고픈 동역자님들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체계가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이 때에도 반겨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에도 평안하셨기 바라며 문안드립니다.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혹시 저로 인하여서 코로나 감염이 될까봐 걱정되어 만나기도 두려웠지요. 혹시 못 만나고 왔을지라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케냐 사역

지난 3월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채워주신 장애인을 위한 물품과 사무용품이 무사히 도착했는데 예상과 달리 기부용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재무부의 결정에 쫓아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기부라고 하여 면세로 가져와서 팔고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에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진실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면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득에 이들도 동의하며 많은 세금을 100% 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창고세가 세금 보다 더 올라갔는데 사정을 감안한 이들이 많이 감해주어서 무사히 컨테이너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저희 기관을 장애부 선교회로 인식하게 되어 더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가져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지부티 사역

지부티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정부와의 관계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말에 이들의 쉽게 변화되는 마음을 믿지 못하여 적어도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저희들의 관계가 소원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옷들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이번 세계 눈의 날 행사에 쓰려고 가져갔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에 공항에 맡겨놓고 갔었는데 학교 교장이 쉽게 찾아오지 않고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어 할 수 없이 장애인 담당 정부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 왜 이제 왔느냐며 흔쾌히 허락해주고 공항에서 쉽게 찾아서 학교에 넘겨주었습니다. 다음에는 ANPH라고 걸포장에 써놓고 오면 문제 없이 찾게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학교와 함께 돕고 있음을 고마워해서 감사합니다. 좀 더 큰 집을 얻어서 사무실과 집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마음이 큼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일을 하게 되어 같이 점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자 하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지방에는 시각 장애자 학교가 없고 도시 지부티 시내에는 기숙사 시설이 없어서 지방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이용해 장애인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말리 사역

선교대회가 끝나고 좀 와서 쉬라고 강요하는 소말리 한 난민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서 다른 소말리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 가 잘 살고 있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주위 환경이 어려워 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은 13살 때 난민으로 오지 않고 엄마 따라 미국에 왔는데 불법체류자로 인식되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로 인하여 충격으로 소아 당뇨병에 걸려 지금도 고생하며 루케미야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엄마의 시민권이 내년엔 나오게 되고 본인의 체류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병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하루 4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

까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말리 신도들이 같이 모여 격려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다른 신도들의 생활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한인 교회에서 선교관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말리아 사역에 동참했던 여러 미국인 사역자님들도 동참하여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칸 난민과 그 딸을 데리고 강가에 갔는데 아이가 물에 들어가 손을 잡아주었는데 갑자기 경사가 깊어 물에 빠졌는데 제가 메고 있던 가방에 있던 전화기가 물에 젖어서 완전히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도, 카톡도, 이메일도 안 되어 캄캄한 생활을 보내다 한국에 와서야 전화기는 복구했으나 아직 이메일은 열수가 없습니다. 일단 케냐에 도착해야만 살릴 수 있답니다. 어휴!! 옛날 이런 것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요?

한국 선교사 대회

2020년에 열려야 할 선교대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미루었다가 조금 완화된 지난 7월 오랜만에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니 기뻐고 아직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선교사 1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대회의 주제였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커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그들의 아팠던 생활들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삶을 변화시켰던 것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항상 옆에 계셔서 후원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9월 25일까지 한국에 있게 됩니다. 제 연락처는 (010)8214-2489, 세션회는(02)325-4383 김택수 총무님께 연락하면 됩니다.





캄보디아

김득수 이옥란



꼬마손님들

학교 가면서 잠깐 들리더니 재미가 들었는지 예닐곱 명의 꼬마손님들이 들렀다 갑니다. 초등 1년 아이들인데 아침 시작을 즐겁게 해줍니다. 수족관 물고기와 잠시 놀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 퀵 보드를 타기도 하며 멋진 책상에 앉아 공부놀이 할 하다가는 카페로 들어옵니다. 간식으로 우유 한잔씩 먹인다 생각하고 봉사하는데 뿌듯한 기쁨이 풍성한 수입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와서 좋은 먹거리를 즐기며 먹는 모습이 행복하게 합니다. ‘뚜얼’에서는 1달러만 되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신기한건 풍돈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과 함께 하는 주일예배

이벤트로 시작하지 않고 암암리에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어나 컴퓨터 배울 욕심에 첫 주일에는 60여명 모였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25명 남짓 모입니다. 아주 안심이 되며 정상 출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성경만 가르치니 정말 관심 있는 아이들만 오는 셈입니다. 아침 아홉시에 일반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교 남학생 두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래전 바티에이 주일예배에 찾아왔던 대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르웃’ ‘쑉라이’ ‘쓰레이린’ ‘쓰레이넷’ 준비된 집사들이 사역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막연한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는 일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대문을 열고 흠뻑이 넘 심하니 비포장 길가에 물을 뿌립니다. 트럭과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공장에 출근하는 아가씨 아줌마들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인사를 하니 너무 좋아하며 같이 손을 흔듭니다. 인사도 전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야 어찌 인생을 논 할까요? '뚜얼 은혜교회' 하나님의집을 세우기 위해 4미터 콘크리트 파일을 63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마음 밭에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기초가 반석 되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선교농원

세상에!! 선교나무심기로 시작한 커피농원에서 커피나무가 꽃을 피우더니만 열매를 맺습니다. 빨간 커피 체리가 탐스럽게 합니다. 체리를 먹으니 그 안에서 커피 빈 두 조각이 나옵니다. 처음 맛보는 맛입니다. 달콤합니다. 커피체리가 와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급한 것은 이 생두로 커피를 볶아 커피잔에 올릴 수 있을지 더 감감해집니다. 제법 두리안 묘목도 잘 자라고 있고 아보카도는 나무가 되고 있어 곧 열매를 딸듯합니다. 금년에는 야자수에서 첫 코코넛 열매를 따서 먹는 즐거움도 가졌습니다. 선교농원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

바티에이대학

캄보디아 교육부는 교육학제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 맞추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0월 방학과 함께 11월에 수능 1월에 학사일정에 들어가던 때로 돌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들은 아직 졸업식도 가지지 못한 채 그 일정에 따라가야 하나봅니다. 첫 졸업식을 가져야 다음 신입생도 모집하며 다음을 내 던지게 되는데... π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한 준비와 대학을 한 단계 올려 세우는데 모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바티에이 선교동역자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행복감은 배가됩니다.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때가 없이는 새로운 시작의 동기 부여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두 가장 힘든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캄보디아

김찬주 이미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인사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5월부터 9월 까지 우기입니다. 우기에는 매일 비가 오고, 고온 다습한 날씨로, 하수도 인 프라부채로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되곤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있는 캄퐁츠낭 센터에는 큰 비 피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기를 잘 보내며 8월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프놈펜에서 81km 떨어져 있는 캄퐁츠낭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를 위해 늘 기도와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션회 모든 분들 복된 9월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전도 및 양육사역

기도해 주신 덕분에 5월부터 8월까지 마을의 빈민가구들의 형편도 파악하며 관계전도 할 목적으로 22가구 심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 예비된 영혼 21명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보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구제사역

아내 이미숙 선교사와 함께 4월 쌀을 나눠주었던 빈민가구 심방을 준비하면서, 마음 문을 열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차(5/2-13), 이차(5/23-27) 로 나누어 24가정을 심방 했고, 병과 가난에 고통 받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

다.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 중에 마음이 많이 열린 8가정을 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삼차(7/6-8), 사차(8/8-10) 심방을 했습니다. 9월에 한국의 추석명절과 같은 캄보디아 명절인 프춤범(9/23-25) 전에 다시 한 번 쌀 나눠주기 구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사역

2월에 시작 했다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된 한글교육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사활동과 노동 등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진학을 못하고 가난한 가정 자녀들을 위해 센터에 방과 후 공부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학업도 도와주며, 향후 계획 중인 크리스천 학교의 모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당진의 동일교회 교육팀이 센터를 8/15-20일 방문하여 이 사역에 대해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예수마을 프로젝트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공체 자립을 목적으로, 깜퐁 츠낭에 31만평에 복합농장과 일자리 공장, 그들의 다음세대들을 크리스천 리더 십으로 양육할 크리스천 학교사역, 다음세대들에게 예수의 일생을 전할 His Life Theater 건립(전 세계 크리스천 성악가들이 단기선교로 예수일생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고 주일에는 Chapel 로사용)이 포함된 예수마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시범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를 심어 수확했고, 마을 가난한 주민들과 나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8월에는 헤세드와 협력하여 콩을 파종했습니다. 9월 30채 House 공사와 내년 초 His Life Theater & Chapel 공사위해 중보기도 부탁



드립니다.

개인 및 가정관련 내용

저와 아내가 5월 25일 건강검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한 중증 하지정맥류가 발견되어 6/9일 수술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수술과 회복이 되어 일정대로 6월24일 다시 캄보디아 사역지로 잘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캄보디아를 위해

캄보디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킬링필드에서 리빙필드로 회복되고 부흥되길

2. 예수마을 프로젝트를 위해

성령님 인도하심대로 한 스텝씩 나아가며 이곳에서 캄보디아선교사들이 양육되어 파송 되며, 자립을 위해 헤세드 협업하는 콩/팥 농사위해, 하반기 30채 건축과 내년 His Life Theater & Chapel 공사위해

3. 전도와 양육 위해

예수님을 영접한 왓과 윗이 믿음이 잘자라 선교사로 파송되길, 예수님 영접한 째느/헨/똥/Pov/투안 /뻐으/인/린/Mean/더희/찬톨/사랏/스러이 /스러이또웃/Sok/염마라/Voem/쓰러이마/썬얼/미웅/보언 믿음이 잘 자라길

세션회 웹사이트에서도 PDF 버전으로 세션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sehsungm.org



탄자니아

박재덕 이순안



사역과 기도 나눔

샬롬!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늘 믿음의 자녀들이 성숙해 나가도록 힘주시길 간구합니다.

한 때,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많은 소식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나누는 소식 또한 그 누군가에게는 정크로 취급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꼭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전달되어 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 누군가의 정크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소통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키바하 소식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던 7-8월이 지나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9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쯤은 서서히 소우기가 시작되리라 믿고 베이스 안에는 갖가지 채소 씨앗을 뿌리고 더러는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까이 커다란 재래시장이 있어 사 먹는 게 더 저렴했는데 이젠 물가상승으로 이곳 현지인 스템들이 자발적으로 농사를 짓는걸 보니 어렵다는게 실감납니다. 저희는 여전히 고기, 우유, 쌀 등은 사서 주어야나 먹을 수 있기에 종종 조금 더 사서 나눠먹는 즐거움을 갖고 서로 감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 돌아보기

현직인 자녀 학교를 시작한지 2년은 허니문 기간처럼 정신없이 분주하고 금방이라도 교육의 질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사들도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고 학생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걸 보면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들 문화와 삶 속 깊은 전통들을 알면 알수록 변화를 기다린다는게 부단한 인내를 요구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중에서 사랑은 오래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나라. 유독 이 부분을 많이 읊조리며 서로의 삶속에서 사랑을 들어내며 실천해 나가길 소망해봅니다.

교사교육

가급적 개별 지도하는게 더 효과적인걸 알게 되면서 지난 4월 이후부터는 계속 교사들을 한 두 명씩 불러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한번 알아듣게 말했으면 그 다음은 알아서 그대로 하는 게 기본인데 이들은 매번 같은 말을 하게 해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 힘이 빠지곤합니다. 그래도 몇 명의 교사들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에 희망도 살아나곤 합니다.

곧 개학을 앞두고 교사들이 한 주간 먼저 출근하여 교실을 정돈하고 다음 학기 수업을 계획하고 다양한 교재들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학기부터 유치원 교실 하나를 더 열어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도 점차 늘어나고 신입교사가 세 명 들어와서 개별지도를 하고 이 훈련이 마쳐지면 교실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학교가 점점 규모가 커지는데 선한 청지기처럼 학교를 이끌어갈 선생님들이 많아지길 늘 기도합니다.

식당과 기숙사를 건축 중입니다. 교실에 전기 공사도 하고 많은 변화를 주며 계속 공사 중입니다. 이 일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두 달 전에 뇌출혈로 쓰러 지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모세혈관이 터져 응급처치하고 회복도 빠르게 나타나 지금은 걷기연습도 하시며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병실에서도 일을 지시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으려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계속

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들을 모아 컨테이너로 보내지는 의견이 나와 가급적 쓸만한 중고품이라도 모으고 있고 집에 쌓여있는 물품들 중 사용 안하는 자녀들 스포츠 용품들이나 음악용 악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혹 관심 있고 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개별 연락 주시면 소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스 내 직원이 결혼을 하여 두 분이나 떠났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적응하고 서로 협력해 가길 기도합니다. 현재 직원이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은 총 이번년도까지 150명을 목표로 하는데 학비를 다른 일반학교보다 많이 받아서 그런지 쉽지는 않지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 나눔

1. 계속해서 교사교육과 관리를 잘 감당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2. 박재덕 선교사의 오른쪽 손목 터널 증후근이 생겨 아파하는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베이스내 공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필요한 비용들이 잘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4. 교사들과 학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길 기도합니다.
5. 저희도 더욱 맑은 영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사랑과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6. 막내 진수가 4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서 안식년을 갖으며 국내 MK 사역자들과 연결되어 다양한 사역들을 돕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과 은혜의 말씀으로 충성된 자녀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고석진



안녕하세요. 필리핀 이사벨라에 고석진 선교사입니다

사역 보고에 앞서 이곳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이곳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낙띠뿌난 교회와 바나와교회 그리고 까디끼단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낙띠뿌난 교회

침례교인 낙띠뿌난 교회는 이푸가오주 알폰소리스타 산토도밍고 낙띠뿌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역자는 에네르 마타 목사입니다. 가족은 6명이며 자녀는 3남 1녀 입니다. 2012년 만났으며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게 되었고 현재 교회가 세워진 낙띠뿌난 마을에서 마을 전도를 시작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어린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사택 건축을 하였고 토요일 어린이 모임에 어른들이 5~6명이 모이기 시작해서 야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작은 공간에서의 예배가 너무 불편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 8월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배 참석 인원은 어른 25명, 청소년 20~25, 어린이 20명 정도이며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재 세례 교인은 약 40명 정도이며 장학 후원은 대학생 4명, 하이스쿨 15명입니다.

8월 28~29일 낙띠뿌난 교회와 바나와 교회, 산티아고 교회등 세 교회 청소년들의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과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바나와 교회

이 교회는 등대교회이며 이사벨라주 산티아고시 바나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역자는 말초 카베로입니다. 가족은 5명이며 자녀는 1남 2녀입니다 2016년 만났으며 산티아고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땅을 제공하여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그와 함께 매주 토요일 가정과 천막에서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렸으며 2017년 교회 건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예배 참석 인원은 약 50명이며 어린이는 20명 정도입니다. 세례교인은 20명 정도입니다. 장학후원은 대학생 3명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까디끼딤 교회

이 교회는 벨엘 교회이며 퀴리노주 낙띠뿌난 까디끼딤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라피 둘누안이며 지난 7월 16일 결혼을 했습니다. 2019년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당시 약 6~7평 되는 공간에서 교회 개척을 막 시작 할 때 였습니다. 까디끼딤 마을에서 자랐으며 성장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2년을 마친 후 환경이 열악한 산속마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려고 할 때 그의 어머니께서 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줄 것을 아들에게 부탁하였고 그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에 남아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재정 형편 때문에 완공은 하지 못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현재 예배 참석 인원은 청소년 포함 약 45명 정도이며 세례 교인은 15명입니다. 장학 후원은 신학생 1명과 대학생 1명입니다

4년 전 악따(아이따) 사역을 시작했으며 칼부. 마숙(교회 건축을 막 시작했습니다) 산디오니시오세개 마을 사역 소개는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지영환 김희수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베트남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 5월말, 1박 2일로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교사강습회를 진행하였고,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8월 초순까지 광응아이(200명), 자라이(400명), 빈푹(40명), 푸인(50명), 깜란(200명), 럽동(130명), 구찌(50명), 빈중(7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베트남, 하지만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내년에도, 또 계속하여 베트남의 어린 영혼들을 위한 이 사역이 지속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 크게 후원해 주신 '세션회'와도 함께 동역해 주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스텝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기 MTS를 마쳤습니다.

베트남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 1기 뮤직&미디어 훈련학교'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 훈련학교는 베트남 교회의 예배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예배를 위해 필요한 악기와 미디어 부분을 가르치며,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부족한 제가 음향파트의 강의를 맡게 되었고, 약 20명의 학생들이 음향파트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이 강의를 위해 2-3시간의 거리를 달려와서 예배로 시작하여 또 2시간의 수업과 실습과정을 소화해 준 학생들에게 부족한 강사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불어 이 사역을 위해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귀임하였습니다.

지영환 선교사가 현지에서 갑작스러운 심장의 이상으로 검사와 치료를 위해 약 3주간 한국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지난 8월 12일 다시 사역지로 귀임하였습니다. 지영환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자녀(의진, 유진)가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약 2년 만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이 나라에서 두 아이 학교에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다니던 학교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한국에서 교단 파송선교사 훈련을 받는 동안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초등과 중등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거의 2년 만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집 렌트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 학비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인분의 소개로 좀 저렴하지만 괜찮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저너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후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교회의 음향기기 지원사역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2015년 베트남에 와서 현지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작고 어려운 현지교회의 음향기기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전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교회가 전도를 하는 방법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있는 음향시스템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들리는 소리는 거의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교회가 충분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전축이나 가라오케 스피커 같은 것들을 사용해 예배를 드리니 소리가 찌그러져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제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부분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네가 가장 잘하는 거잖니!'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작은 교회에 음향기기를 지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2016년, 판티엣이라는 동네에 있는 작고 어려운 소수부족교회에 첫 번째 음향기기를 지원해주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에서 출국할 때까지 약 20여 교회의 음향기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이 땅을 밟았는데 주님은 또 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환율이 예전과 달라져서 한 교회를 지원하는 비용이 약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기 비자를 위해

베트남의 비자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들과 갱신하는 사람들의 장기비자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일시 귀국하였을 때, 신규비자발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1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재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장기비자 발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국

김우종 김에스터



방콕에서 문안드립니다. 여기 북부와 중부지방은 폭우로 인해 홍수가 많다고 하는데 아시아에 자연재해가 많은 것에 염려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고 갈망하며 해결을 보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시 89:26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7/30 매일성경 QT)하신 말씀이 5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나서 14살 때 주님을 만나 “아버지”라 불렀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2 큐티 말씀 중 레위기 18:1-4 에서 4 번씩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 할 때 주님께 고백한 토요일 이후 며칠 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하시는 것 같아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복음이 아시아에 깊이 뿌려져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엠 아시아지부 리더 모임(7/9-12 펜양, 말레이시아) 아시아지부 리더들이 남은 2020 년에 있는 지부 사역들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엠을 후원하는 한 성도님이 많은 두리안으로 저희를 환대해 주셨고, 우디 선교사도 3년 만에 두리안을 시식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표인 에셀리가아시아 기도 마라톤 참석자(Run4TheWord)가 600 명이 넘으면 삭발한다고 공약했는데 2천명이 넘게 되어 저희가 보는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를 향한 사역의 열정을 리더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부 리더들에게 지혜와 겸손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국 은혜교회(7/31) 태국에서 중국화교들이 71년 전에 개척하여 남침례교단에서 가장 오랜 된 교회입니다. 1부는 태국예배, 2부는 중국예배로 드리는데 우디 선교사가 태국예배 말씀인도가 있었습니다. 이교회가 오엠 태국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고 있고, 교회의 리더인 티엔차이 장로와 가족들은 근 20년이 넘도록 저희가족과 관계를 가져온 신실한 주의 가정입니다. 태국교회들이 보내는 선교와 섬기고 드리는 선교의 동역을 갖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리랑카 재난구조 프로젝트로 2019년 부활절테러로 인해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2020-2021 은 페데믹으로, 2022년은 정부 부패와 IMF로 지난 4년간 교육시스템이 없어지고, 현재는 정부 부패와 경제 파산으로 온 국민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어 재난 구조 프로젝트를 7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스리랑카에 오엠지부를 개설하고, 털리니 비저 자매(스리랑카대표)와 아시아 재난 운영팀을 조성해서 자원자들,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앞으로 3만 명에게 식량을 조달하고, 500명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재정이 채워지고(현재 30%모금되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는 물자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아시아 지부 리더들의 이사회 운영과 정책 훈련 (8/18-22, 마닐라, 필리핀) 이 모임의 목적은 오엠 국제본부에서 아시아 지부 리더들이 훈련을 받아 아시아 각 나라 오엠 이사들의 정책과 운영을 가르치고 전수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잘 훈련을 잘 받아서, 건강한 리더들과 이사들이 기쁨으로 섬길 는 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부 리더들이 훈련 속에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재정 동원과 오엠 한국 집회로 9/18-27 까지 한국을 방문 하게 됩니다. 코비드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니 기쁘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며,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넘치시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를 통해 주님의 축복이 가정, 사역, 생업, 학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 합니다. 건강하시고 주안에서 승리하세요.



제주선교(캠퍼스)

석재환 이은영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걱정과 염려를 비롯하여 거대한 염려 때문에 행복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행복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기에 삶이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CC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 - Loving GOD, Loving Myself

지난 6월 27-29일 까지 충남 공주에 있는 애터미 오롯에서 CCC 대학생들의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요일마다 지역별로 나눠서 참석하였고 낮에는 사역박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젊은 청년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졌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소개하는 샤인 박람회 에서 간사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몰려드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청소년 사역과 선교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함께 동역할 것을 권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온양 신광교회 청년부 수련회 1차 제주 (6월 30일 - 7월 2일) / 2차 온양(8월 12일)

까지 제주에서 온양 신광교회 20여명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를 고

등학교 시절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종석 목사님, 온양신광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계신 이현정 목사님께서 청년부 수련회를 제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80편의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제 메시지를 경청해서 들어주었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말씀과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대부분 모태신앙인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제주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직장인 청년들을 위한 2차 수련회가 온양신광교회에서 8월 12일에 있어서 온양을 다녀왔습니다.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30분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익산“땅 끝 선교교회를 개척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설립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유한수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 CCC 간사 동기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봉어빵 전도로 전국을 누비고 있는 문성훈 간사가 통영에서부터 봉어빵 기계와 재료들을 가져왔고 봉어빵을 굽고 이웃에게 나눠주며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봉어빵에 새겨진 사랑의 십자가를 보며 뜨거운 사랑을 느낍니다.

새중평교회 중고등부 제주 선교 캠프 (8월7-10일)

새중평 성결교회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는 유재원 장로는 청주 HCCC 제자입니다. 40여명의 중고등부 아이들과 교사들과 함께 제주로 선교캠프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고 체계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예배 장소 때문에 고민하였는데 숙소 근처에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 예배당을 빌려서 집회도 은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과 역사하심으로 캠프가 진행될 수 있었고 선교지 탐방을 통해 제주가 척박한 선교지임을 보고 배우고 마음에 도전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양 청소년 회복교회 제주프로젝트 / 목포노회 신안시찰 중고등부 연합 캠프

① 청소년 회복교회 이광철 목사와 청년 1명, 초-중등 9명이 “제1회 제주 꿈, 희망,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9-11일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이혼가정, 편

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기에 더더욱 돌봄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귀한 전도사님의 섬김과 후원으로 펜션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고 성산일출봉, 섭지코지에서 승마체험, 축구, 협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곽지해수욕장 야경, 자연사 박물관 견학, 흑돼지와 고기국수도 맛보며 다양한 제주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숙소에서 이틀 동안 저와 이광철 목사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감사의 시간들, 하트카드 쓰기를 통해 귀하고 값진 인생여행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오고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최악에 노출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② 제주 명성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목포노회 신안시찰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서 저녁집회 강사로 섬겼습니다. 전남 신안지역에 속한 섬 청소년들과 목사님, 사모님들, 선생님들 50여명이 목포에서 배타고 제주로 선교 캠프를 왔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 오래도록 남아있고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제주 영락교회 청년부 애프터 수련회(8월 19일)

제주 영락교회 엘림 청년부는 김녕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지만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2차 애프터 수련회를 기획한 천명기 전도사님이 제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사라진 현실에서 청년들이 다시 금요일에 기도회를 이어가고 영적인 삶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청년들에게 강조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영락교회 한 청년은 그동안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 날 제게 들은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 다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실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더욱 실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지구(캠퍼스)

안종택



살림! 저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서울지구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안종택 목사입니다.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영역은 서울지구 남지역 사역 (8개 캠퍼스: 강서대, 동양미래대, 백석예대, 서울대, 서울고대,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전체 팀장으로서 여기서 사역하시는 7명의 간사들을 섬기면서, 서울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신실하게 후원해 주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세션회와 연결이 되었고, 국내 선교 파트로 대학생 캠퍼스 사역에 관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현재 국내 대학생 복음화율이 3%라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미전도종족 복음화율 4% 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거기다 청년들 사망률 중 자살률이 54.3%에 이르고, 코로나 기간 자살률도 10%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청년들을 향한 복음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아 노인들만 겨우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대표하는 사사기 2장에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삿 2:10)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깊은 속 얘기와 그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거의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ZOOM을 통해서 온라인 채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온라인이 생소한지 화면도 다 끄고 들어와서, 설교를 해도 혼자 공허하게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공간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중 의미가 있었던 사역 중 하나가 '감정 테라피' 사역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DM(개인메세지)을 보내서 다양한 사연을 접수하고,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사연을 읽어주며 공감하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 주었고, 서울대 학생들이 속으로만 끄끄대고 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대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대학원생이었는데, 논문에 대한 압박과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컸었나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서 전도를 이어가시고 학생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저희 공동체로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지체 중 몇몇이 지금은 순장이 되어 다른 학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진 전국 여름수련회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역도 모두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대면으로 수업이 열리면서, 전국 여름수련회에 대한 기대도 커져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대면으로 진행을 하긴 어려워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공주 애터미 본사를 빌려서 광역마다 돌아가면서 저녁집회를 참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2000-2500명 정도 서울&강원, 경기&충청, 경상도&전라도 이렇게 돌아가며 참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LTC 훈련도 함께 병행했는데, 초급과정은 전도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중급과 고급 과정은 제자화 삶과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

를 통해서 복음 가운데 다듬어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다음세대를 세워 가시는구나!' 이번 여름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낙심한 청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사명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에도 복음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서울 남지역 속한 캠퍼스 지체들 15명이 간사 3명과 함께 필리핀 '일로일로'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것 역시 3년 만에 이루어진 선교여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 단기선교로 선교현장을 간접적으로 도왔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의 청년들을 만나 전도하며 순모임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 학생으로 영어도 잘 하고 능력도 많은 친구인데, 단기선교 중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게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낙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선교를 갈 때만 해도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들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담당 사역자로서 저는 그 친구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선교를 통해서 선교지 현장에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학기 개강을 앞에 두고

여름방학이 이제 곧 끝나갑니다. 학생들은 다시 수업을 들으며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부와 과제에 함몰되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캠퍼스에 예배를 세우고 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도 캠퍼스 채플, 전도사역, 순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2학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소식을 갖고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공촌교회

최고수 강계숙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빌 1:8)”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 방문

저는 몽골을 방문하기 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가방이 넘치도록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3년 만에 가는 몽골이라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14일~8월14일까지 한 달간 집중 기도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둘째, 몽골의 선교의 미래를 보게 하소서

셋째, 몽골방문 기간 통역과 차량운행 필요합니다.

넷째, 복음의 일꾼을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저는 홀로 몽골을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부터 비행기가 취소되고 새벽비행기에서 오후 비행기로 바뀌는 등 처음부터 몽골방문 일정에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몽골 공항에 도착하자 비자 검색도 없이 순조롭게 입국절차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출구에는 보잉바타르 목사님 부부와 아들, 그리고 셀렝게 부부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레네 집사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레네 형제는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그 부부는 첫 열매이자 공촌교회에서 세운 몽골교회 책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부부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몽골을 찾을 때마다 그 부모님을 찾아가 아들 대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지난해 노환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차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큰 딸 슬기(지금은 목사 사모)의 친구인 외손녀 대기 자매 부부가 차량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손녀 대기의 시부모님이 몽골 국경 근처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회자이셨습니다. 몽골에는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사역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초기 우리 공촌교회에 나오면서 열심히 믿음생활 하던 몽궁후 형제 부모님 집입니다. 2018년부터 방문하기 시작한 이 가정은 당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모님이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 전하면서 어머니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 이후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이번에는 궁금함을 앓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여동생과 결혼하여 두 살 된 딸을 둔 누님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과 사촌 여동생도 잠깐 방문하여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퇴근한 누님과 아버님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님은 변호사로 몽골 현지 한국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수재였습니다. 누님은 예수를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믿음의 문 앞에 있었는데 끌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누님에게 복음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특별히 아버님에게는 내년까지 몽골 성경을 한 번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몽골의 현대화 된 순수하고 안정되게 지내는 모범적 가정이었습니다. 내년

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그리워하고 만나고싶어하는 공촌의 지체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20년 전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40을 넘어 중장년이 다 되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민대(민드사이항, 사업), 몽골 지체들 연락을 담당하는 토야 자매와 딸 줄리(줄라), 믿음이 너무 좋은 동가 집사와 딸 셀렝게, 공촌의 가장 초창기 열매 아류나 자매(사립학교 운영이사장), 알타 사모(고 수혜목사 사모, 수혜 목사님은 지난 2월 간암 말기로 소천), 몽골에서 열매맺은 나기 자매와 어머니 오요나 집사, 절러(이레네 누님), 울란바타르 한국 관광공사 몽골지부에서 근무하는 몽골의 열매 오뜨거 자매, 그리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애기씨, 더기 자매. 모두가 나의 영적 열매들입니다. 이 지체들을 만나 옛날 공촌교회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믿음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다시 옛날 공촌교회의 시절로 불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공촌교회에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에제니 알다르 초글랑(주님의 은혜교회, 할룬나 목사)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아침 7시에 보잉바타르 목사님을 만나 할류나 목사님 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울란바타르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9시에 약속된 교회까지 거의 1시간 반이나 걸려 도착하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울란바타르 시내에 차량이 너무 많아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여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전 11부터 시작되는 식사를 위하여 봉사자들이 9시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료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을 위하여 월요일과 금요일 1주일에 두 번씩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술중독자 재활센터에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교육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촌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헌 옷가지나 생활용품, 어린이 용품들을 모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몽골을 방문하면서 전기밥솥이 필요하다고 하여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였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갱생농장도 준비한다고 하여 게르(몽골 전통 천막집) 구입에 사용하도록 후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김고남 옥설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 계절에 선한 목자교회 사역보고를 드립니다.

6월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전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나오시면서 교회 반주와 봉사로 아름답게 섬기시던 집사님 가정이 6월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좀 멀리서 교회로 오시는 가정인데,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의 병도 있으셔서 힘들어 하시다가, 어렵게 결정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에 한동안 우울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 집사님 가정의 손길이 남아있어 허전함을 더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옥설 목사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갑자기 책이 필요하시냐고 전화로 물으셨습니다. 마침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섬겨야겠다 결정한 터라 놀라웠습니다. 범우사 출판사에서 필요한 책을 고르시면 보내드리겠다고 하셔서 필요한 책들을 골랐더니 얼마 후 수 백 만원이나 되는 책들이 택배로 도착하였습니다. 출판사에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책으로 결제 받게 되어 보내신 책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



교육문화적으로 낙후된 동해시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 첫 주일은 교회창립 7주년이었던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창립 7주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작고 부족함 투성이인 교회를 보며 하나
님 앞에 많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사역을 더욱 힘차게 하고
자 하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역처럼 일하였던 '천곡동 중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총회와 해산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합의 업무를 거의
혼자 한 터라 마지막 조합 청산의 단계에서 손을 뗄 수 없어 업무를 계속해야 하
는데, 10월말이면 최종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조합 청산 업무가 많지는 않
아서 교회 사역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첫 주에는 여름휴가를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아들, 딸이 대학생인데 방학동안 아르바이트
와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 동해로 오지 못해
부모인 저희가 아들, 딸을 보러 막내딸과 함
께 서울로 갔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
교회협력센터의 숙소에서 삼일 동안 있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
기간 중 분당에 있는 푸른마을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특별한 사서 선생님과
의 만남을 통해 소중한 조언들을 얻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을 통해 도서관친구들 대표이신 여희숙 선생님을 소개받고, 서울 광
진구에 있는 '날일달월' 책방을 찾아갔습니다.

날일달월은 책방이면서 암 환자들에게 좋은 건강식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책방
이었습니다. 여희숙 선생님은 일을 하고 계셔서 책방에서 한참동안 책을 구경하
고 한두 권 책도 구입하다보니 선생님이 '뭐 도와드릴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
다. 이때다 싶어 작은 도서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얻고자 왔다고 했습
니다. 선생님은 여러 조언을 주셨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친구들 모임
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황영숙 집사님은 재건축 조합원이셔서 알고 지냈는데,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후 일어서지도 못하는 시간을 6개월이나 보내셨습니다. 그 기간 중 멀리 있던 언니, 동생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실 때는 전도를 거부하시다가 마음이 약해지셔서 교회에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건강도 차츰 좋아지시고, 세례 받으시고, 올해 서리집사로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천안에 계신 동생 권사님의 아들 주영 형제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이 많이 발전하였고, 신장으로까지 전이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딸, 아들 둘을 바라보며 홀로 사셨는데, 그 아들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을 휴학까지 하면서 세무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동안 영양 실조까지 걸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황 집사님으로부터 듣고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주영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잘 수술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이것이 주영 형제의 간증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축복으로 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예상보다 빠른 회복으로 퇴원하여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엄마가 해 주는 밥이 보약'이라고 하면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 이후 완치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1. 전도와 양육의 사역, 예배와 섬김의 사역이 잘 이루어져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2.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 잘 준비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소서.
3. 뇌경색 및 치매,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지병으로 베다니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김형민 집사님이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군 선교

김용화 이윤희



위문 및 전도사역

여전히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군 부대에서는 여진이 조금씩 때로는 만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3여년 만에 GOP 위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오전 9시에 출발예정이었지만 전방 날씨가 좋지 않아 10시30분에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해서 기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지휘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전 소초를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8월달 부터 복음 전하는 시간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 소초마다 처음 만나는 간부들과 용사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 어느 용사는 눈물을 흘리는 용사도 있고 처음 예배드린 용사는 너무나 행복한 군 생활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용사도 있다 앞으로 매주 마지막주는 세례식이 있는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제 복음을 들고 그동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 까지 전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교육관 보일러와 화장실 신축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듯합니다. 교육관 누수차단공사와 보일러/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다. 오래된 보일러(15년)와 노후 된 배관과 교육관 안에 화장실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선회 도움으로 수리 및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선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사로 용사들이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제 걱정 없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GOP 복음 사역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음 부르심(제대)을 잘 준비하여 보내심을 받도록
2. 전방 지역이다 보니 일반차량으로는 다닐 수가 없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산악 오토바이로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악오토바이(천 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군인 가족들의 섬김 : 각 부대 간부님들이 견고한 믿음의 지휘관으로 세워져 군 복음화에 사용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외 교회 식구들의 헌신과 섬김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4. 부대 훈련과 교육 일정 : 자금 현재 유골채취 작전과 불모지(지뢰 탐지 제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관심 용사들 : 어려움 중에 있는 용사들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부소식

1. 본회 협력선교사와의 만남

지난 7월 13일 본회 협력선교사(설재현, 이해화, 고석진, 최고수)님들께서 본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날 정동수 이사장, 김경식 이사, 권태균 감사, 김택수 총무가 함께 하였으며 선교사님들의 선교보고와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선교동참 요청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션회(02)325-4383~4 담당 김택수 총무(010)9092-2451

후원자 명단

2022년 6월

임원헌금
선교후원금
조성덕선교사

김득수선교사
정석훈선교사
박재덕선교사
아룬다스선교사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홍은경
고명지
LGDP신우회 권오현 기장총회 김남훈 김아영 남공현 박보애 박영덕 석태임 신반포교회
신반포교회 왕성교회허세드 음토토아프리카 이수복 강삼열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전주동부교회
제주영락교회 주영아 최정숙 퇴계원교회 홍제성(신경숙) 반석교회
김도영 비산동교회 빛과소금교회 세선회 이시영 인도차이나선교회 참빛누리교회
세선회
박현정 아형순 예담교회 유성수 이은영 이혜정 장석교회 정태희 허윤정 황선미
박형건

2022년 7월

임원헌금
조성덕선교사

김득수선교사
정석훈선교사
박재덕선교사
아룬다스선교사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홍은경
lgdp신우회 기장총회 김남훈 김아영 남공현 박보애 박영덕 반석교회 석태임 신반포교회
음토토아프리카 이수복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제주영락교회 최정숙 퇴계원교회 허세드청년부
홍제성(신경숙)
김도영 비산동교회 빛과소금교회 세선회 이시영 인도차이나선교회 참빛누리교회
세선회
박현정 예담교회 유성 이은영 이형순 이혜정 장석교회 정태희 허윤정 황선미
박형건

2022년 8월

임원헌금
선교후원금
조성덕선교사

김득수선교사
정석훈선교사
박재덕선교사
아룬다스선교사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홍은경
고명지 2회
lgdp신우회 강현주 권오현2회 기장총회 김남훈 김아영 남공현 박보애 박영덕 반석교회
석태임 신반포교회 이수복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제주영락교회 조성덕 주영아 퇴계원교회
허세드청년부 홍제성(신경숙)
김도영 비산동교회 빛과소금교회 세선회 이시영 인도차이나선교회 참빛누리교회
세선회
박현정 예담교회 유성수 이은영 이형순 이혜정 장석교회 정태희 허윤정 황선미
박형건



세션회

Sehsun Global Mission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2-8 세션회관 5층 세션회
T : 02-325-4383~4 / F : 02-325-4382
www.sehsungm.org

세션 뉴스레터

Sehsun Newsletter

통권 178호

발행처 사단법인 세션회

발행일 2022년 9월 19일

발행인 정동수

편집인 김택수

편집 로데미커뮤니케이션



▲ 공약을 지킨 에실리 선교사(김우중)

세션회 조직

이사장	정동수
부이사장	최일신 최영인
이사	김애현 김예상 김희성 나영주 박도준 정케이티(김경식) 홍은경
자문위원	석세일 오세철 홍달천
감사	권태균
총무	김택수

협력선교사

감비아	유재동(안정순)
독일	차상원(정진희)
미얀마	김균배(최기숙), 박순영
베트남	지영환(김희수)
세네갈	설재현(이혜화)
인도	유동윤(유형난), 아룬다스(타나살린)
지부티	조성덕
탄자니아	박재택(이순안)
태국	김우중(김에스터)
페루	김태식(김명화)
필리핀	김주호(김한나)
필리핀	고석진
캄보디아	김득수(이옥란), 김찬주(이미숙), 정석훈(최소영)
케냐	정동철(이미림)

국내선교

군인교회	/ 김용화(이윤희)
제주	/ 석재환(이은영)
공촌교회	/ 최고수(강계숙)
내백교회	/ 강분식
신한목자교회	/ 김고남(옥설)

후원방법

- KEB하나은행 164-890002-77504 / 국민은행 032 - 25 - 0003 - 114
- 신한은행 100 - 017 - 544191 (예금주: 세션회)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4383~4)

세션회 웹사이트에서도 PDF 버전으로 세션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sehsungm.org

사단법인 세션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실천적 생활 훈련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따라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사회에 기여 봉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1990년에 설립되어 선교사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